



10월
첫째 주

가정예배

과연 누가 큰 자일까요?

찬양해요 찬송가 212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22:24-30

-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 이해하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들은 그러한 꿈을 통해 유명세와 재물과 권력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위대함을 달성했다면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평가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으시며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인지, 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생각해보기

1 세상에서는 왕이나 지도자를 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지도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26절)?

* 은인 : 로마의 군주나 황제 또는 신들을 지칭하는 말

너희 중에 큰 자(지도자)는 와 같다.

2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남의 섬김을 받으며 먹을 것을 먹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나는 로 너희 중에 있노라

3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30절)?

4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세요.

5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하늘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하루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